

능력을 남용하면 목숨이 위태로우리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③ 수вори 조사 문화에서 나오는 손오공

깊은 밤 야상점에 수вори조사가 손오공에게 금단(金丹)의 대도를 전한다. 무릇 정(精)과 기(氣)와 신(神)을 단련하는 것이 금단대도의 요체이니 사악한 마음을 없애고 깨끗하게 되어 정진해 나간다면 그 공업으로 신선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느니라.

이때부터 손오공 마음에 선기(仙氣)가 깃들게 되어 부지런히 호흡 수련을 중심으로 한 선도의 수양에 힘쓴다.

이러한 수행이 또 다시 삼년 째이고 근기가 두터워지니 수вори조사 한 걸음 더 나간 공부를 전한다.

72 지살수라는 온갖 술법을 배우고 구름 타는 공부가운데서도 빼어난 공부인 근두운(筋斗雲) 술법까지도 배워 몸 한변 뒤체는 사이 십만팔천리를 휘의 나르게 되네 손오공 정말 출세했구나. 원승이 왕노릇 보다 백배 낫구나.

우쭐 우쭐 손오공, 무서울 게 없더라.

어느 날 여러 제자들 앞에서 자랑을 좀 했잖나. 여러 가지 술법 가운데 둔갑술 같은 것을 보여주니 제자들 놀라서 와글와글 수вори 조사 웬일일까 나와 보시곤 크게 놀라서 손오공 호출하신다. 무서운 개인면담! 당장 내 문화에서 떠나거라! 보물을 가진 자가 그것을 함부로 내보이면 제약을 피할 수 없으니 여기 있다가는 네 목숨이 위태로우리.

그리고 내가 아직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주제에 범술에만 능통하였으니 앞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할 것이 틀림없다.

그 계양이 나에게까지 미칠까 큰 걱정이구나.

만약 나에게서 이러한 제주 배당다는 이야기를 병곳이라도 한다면 내 너썸 따귀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저승에서도 쫓아내 결단코 다시 태어나지도 못하게 하리라!

단 한번 실수지만 결단코 문화에 남길 수 없다는 수вори 조사의 호통~

손오공 어쩔 수 없어 은혜에 감사드리고 화과산 수림동으로 돌아온다.

갈 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금의환향? 훌쩍 근두운 타고 당당하게 돌아온다.

원승이들어, 나 돌아왔다! 왕의 귀환이니 모두 나와서 맞거라!

자, 이제 손오공이 본격적으로 금단대도(金丹大道)에 입문을 하는군요.

여기서 금단대도라 하는 것은 바로 도교(道敎)의 핵심이 되는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자리지만 도교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도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영향을 끼쳐 왔거든요. 그래서 도교에 대한 상식을 가지는 것은 현실의 불교를 이해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주니까요. 일단 도



그림 · 최주현

교의 연원과 역사, 그리고 핵심적인 사상과 수양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도교란 어떤 종교인가 궁금하시죠? 또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인 노자와 장자 등의 사상을 도가사상(道家思想)이라 하는데 그것과 도교는 어떤 관계인지도 알고 싶으시다면요?

앞에서 나온 금단대도라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기로 하지요. 금단이라 하니 떠오르는 것 없나요? 한자로 써 볼까요? ‘金丹’, 황금의 단약이라는 말이지요. 요즈음 우리나라에 단학(丹學)이라는 말이 좀 알려졌나요? 혹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선도소설 <단(丹)>이라는 책 아시는 분도 있을 법 하구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단’이라는 말이 바로 금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금단이라는 것은 원래 여러 희귀한 약재를 모아 단로(丹爐)라는 금단 만드는 화로에 넣고 오랫동안 법식에 맞게 정성껏 제련하여 만드는 단약을 말하는 거지요. 이렇게 만든 금단은 불로장생의 큰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어요. 그 금단 만드는 법이 원시 도교의 중요한 비법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금단을 만드는 약재가 중금속, 특히 수은이라든가 납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불로장생을 위해 금단을 먹었는데 거꾸로 그 부작용에 큰 고생을 하거나 심하면 생명을 잃는 경우도 꽤 많았다는 거 보니까. 역대 제왕들의 묘를 발굴하여 그 뼈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은중독, 납중독의 증상을 발견한 경우가 많았답니다. 오래 살려고 도사(道士)들이 진상하는 금단을 먹은 결과라고 생각되네요. 도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갈홍이라는 분이 지은 <포박자>라는 책

손오공, 술법 배워 힘자랑하니 결국 수вори 존자 문화서 쫓겨나 “제주 보다 세상 편하게는 진리를” 불교 깨달음 궁극 목표로 제시 의미

에는 이런 금단의 종류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세 도교에서 이 금단들을 기록에 따라 제조해서 시험해봤다는군요. 그 결과는, 가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왔다는군요. 하하~.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다 보니 실제 금단을 만들어 먹는 방법은 점점 쇠퇴해지고 - 아주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새로운 장생불사의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초의 방법인 ‘금단’의 방법이 오랜 동안 지배해 왔던 탓에, 새로운 방법도 여전히 금단의 방법이라 불리게 되었죠. 또한 그 수행의 방법도 금단을 제련하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몸속에 금단을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이때부터 사람의 몸 밖에서 금단을 만드는 방식을 외단(外丹), 사람의 몸 안에 금단을 만드는 방식은 내단(內丹)이라고 구별하기도 했죠.

그러면 내단을 만드는 방법은요? 바로 수вори 조사가 말씀하신 정기신(精氣神)의 수양입니다. 외단과 비유하여 말하자면 내단을 만드는 약재는 바로 사람의 정혈(精血)입니다. 이 약재를 제련하여 금단을 만들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기본

적으로 더 필요하죠? 바로 단로와 불입니다. 단로에 약재인 정혈을 넣고 불을 잘 때어야 하잖아요? 여기서 단로는 사람의 몸이겠지요. 그다음 불때기呢요? 바로 호흡입니다. 꼭 호흡만은 아닐지 모르지만 거의 호흡이 전부라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개념이 좀 잡히시지요? 금단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는 무엇? 정혈이라는 약재와 몸이라는 단로, 그다음 호흡이라는 불때기입니다. 이 세 요소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금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청정한 생활을 통해 정혈을 맑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도인법을 적절히 실행하고 알맞은 운동을 통해 몸이라는 단로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재와 단로를 갖춘 다음에는 법식에 맞게 오랜 동안 정성을 기울여 불을 때어야 하는데, 바로 그 불때기의 핵심이 호흡인 거죠. 기본을 갖춘 다음에 어떻게 호흡 수행을 꾸준히 잘 하면 몸속에 금단이 이루어져 불로장생을 이룰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신선이 되어 인간의 경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수вори조사가 말한 금단의 대도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다시 하나의 문제가 있네요. 기본 약재가 정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수вори 조사가 말한 정기신 가운데 정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 그 다음 기(氣)와 신(神)의 수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후세에 발전한 금단 수행법을 좀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자세히 설명하기는 지면이 부족하니까, 후세에 도사로 이름을 떨친 진단(진단에서 송대에 걸쳐 살았던 도사, 최충선생이라 불림)이라는 분이 그린 무극도(無極圖)라는 것을 참조해서 설명 드릴게요. 그

림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원 양 옆으로 연정화기(煉精化氣), 연기화신(煉氣化神)이라는 한자가 보일 거예요. 바로 금단 수행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선 정혈을 단련하여 기(氣)로 바꾸고, 다시 그 기를 단련하여 신(神)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지요. 수вори 조사가 정기신을 말한 것은 바로 이 금단 수행의 기본 골자를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린 김에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맨 위의 원 양 옆으로는 무순 글귀가 있네요? 연신화허(煉神化虛), 복귀무극(復歸無極)이라 되어 있지요? “신(神)을 단련하여 허(虛)로 바꾸고 무극(無極)에 돌아간다”는 말이네요. 허(虛)라는 것은 도교에서 숭상하는 우주의 근원에 해당하니, 바로 인간의 정신을 단련하여 우주의 근원과 소통한다는 뜻이겠지요. 그 경지는 모습을 뛰어넘은 우주의 궁극이라 할 수 있는 무극(無極)에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 같지요? 실제로 도교의 금단 수행법은 노장사상과 신선사상을 종합하여 매우 발달한 수행의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방법은 알게 모르게 불교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해 왔지요. 특히 앞에서 말한 불때기에 해당하는 호흡의 수행법은 도교의 수행법 가운데 핵심을 이루면서 가장 정밀하게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수식(數息)과 수식(隨息)의 방법이 있으며, 인도의 요가수행법과 연관되어 매우 발달한 호흡수행법이 정립되어 있지만, 그 이상으로 복잡하고도 세밀하게 체계화된 것이 도교의 호흡수행법입니다.

서유기의 저자는 이 호흡수행법을 중심으로 한 금단 수행법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며, 이 수행이 깊어지면 부처도 신선도 다 될 수 있다고 말하네요. 불교와 도교를 아우르는 수행의 방법으로 금단수행, 또는 호흡수행, 꼭 호흡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지는 좀 생략해 봐야겠지요? 위빠사나 수행에서도 가장 기본이 호흡관찰이라는 점에서 불교 수행의 첫걸음도 호흡수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불교와 도교의 근본 지향이 본디 좀 다르다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불교는 근본적으로 깨달음을 지향하는 종교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이 근본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선이 된다는 거, 장생불사 한다는 거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에 반해 도교는 그 근본 목적이 ‘연년익수 우화등선(延年益壽 羽化登仙)’입니다. 수명을 늘려 오래 오래 살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선이 된다는 말이지요. 굉장히 인간의 현실적인 욕망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지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청정(淸淨)과 무욕(無慾)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도 장생불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와 도교가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서유기는 이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두 축이 어떤 모습을 띄면서 서유기의 틀을 잡아나갈까...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이야기가 너무 어려웠죠? 앞으로 어려운 이야기 않기 위해 한 번에 확 풀어 버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쉽게 나갈게요. 다음에 봐요.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0월 3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8월 31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했기에 모든 직무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宗團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敎高僧長老團, 世界佛敎考試委員會,
大韓佛敎大宗師聯合協議會, 韓國佛敎元老長老團, 韓國佛敎나라사랑聯合協議會, 韓國佛敎宗團人權委員會, 국제불다봉사단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